

도-새만금청, 새만금 성공 추진 '맞손'

'상생협약 체결' ·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16개 기관 170여명 참석해 소통의 장 마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는 23일 국립청소농생명센터(전북 김제)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집중된 10조원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속한 입주·가동과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실무대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새만금 첫 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와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에 발맞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진행된 합동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원의 새만금 민간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김경안 청장은 전례 없는 성과 달성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준 유관 기관에 감사하며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협조를 당부했다.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은 두 기관의 공동연수로 처음 시작한 후 관계기관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개최해왔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새만금청, 전북자치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16개 기관, 약 17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새만금위원회 이승우 위원이 '새만금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국·내외 사례를 활용해 제안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이 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마이스) 등 3대 허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의 핵심거점인 수변도시의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은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을 위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을, 한국전력공사는 기업활동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전력공급 건설 추진방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산업을 키우는 일에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있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도가 한발 더 뛰겠다. 관계기관들도 '새만금 성공에 힘을 모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자'고 당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상생협약과 합동 워크숍을 계기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탄탄해져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동반자로서 함께 나가기로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이 국민과 전북자치도민의 염원을 담아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진행

도선관위, 5월 10일 '유권자의 날' 선거 참여의식 제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오는 5월 10일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선거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5월 7일까지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5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3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에 걸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북자치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5만 1천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 '유권자의 날'의 의미와 참정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영상 등을 게시해 참여자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j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유권자의 날' 기념 화합의 발걸음 행사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 '워크온'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북자치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상생협약

· 일 자 : 2024. 4. 23. (화) · 장 소 : 김제 국립청소농생명센터



23일 김제 국립청소농생명센터 지평선대강당에서 열린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갖고 있다.

전북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청사진 그린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추진

전북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이하 UAM)을 지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해 전북형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UAM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UAM 관련 국내·외 제반여건 조사 △UAM 관련 전북자치도 제반사항 조사 △UAM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전북형 UAM 사업모델 발굴 △전북형 UAM 시범운용 적합지 선정 △UAM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행 방안 제시 △UAM 산업연계 전략 수립 △UAM산업 육성 지원시책 △전북자치도 UAM 관련 산업 효과 분석 등을 올해 말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의 산업, 교통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UAM산업 육성 정책 등 상위 계획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2026년 UAM

지역시범사업'에 대비해 사업 타당성을 파악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는 UAM 전·후방 산업분석 및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기체·부품개발 관련 기업 도내 유치전략 및 활용방안 등도 포함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주력산업인 탄소·수소산업의 관련기업, 연구기반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제조 산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

공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UAM 지역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해 UAM 관련 연구에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이다.

위치정보 및 기상·소음 정보 등 UAM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하는 UAM 공간정보사업 분야에서도 특화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택립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학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UAM 산업 육성 전략을 완성하는 과정의 시작이다"며, "UAM산업을 주력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정책 확대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지원

전북자치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조명기기를 고효율기기(LED조명)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 2,607개소(저소득층 3만4,450세대, 복지시설 6,158개소, 영구임대주택 1,999세대)에 243억여원을 투입해 조명기기 교체작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12개 시군, 1,491개소(저소득층 1,414세대, 복지시설 77개소)를 선정해 12억여 원을 투입할 교체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이 해당된다. 교체되는 LED조명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획득 제품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 전기요금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참여 대상의 사업 만족도를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력효율향상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농가 소득 전반적으로 '상승'

1억원 이상 판매농가 전년비 17.2% 증가 전국평균 상회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정책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농가 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농가의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1억원 이상 판매농가수는 총 3,844명으로 전체농가(9만호)의 4.3%를 차지

했다. 전년 대비 17.2%(563명 ↑)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9.7%)보다도 높았다. 1,000만원 미만 영세소득 농가는 전년(5만19,000여명)보다 3.8% 감소한 5만7,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농가수(인구) 감소 폭(2.3%)과 비교해 전북의 경우 0.5% 감소한 9만호로 나타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